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중흥건설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현장 충돌/협착 사고 件

안전기획팀
'23.01.30. 17:30

□ **시공사** : (주)중흥건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48위)

□ **현장개요**

- 현 장 명 : 광양 와우지구 A3블럭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전남 광양시 마동 1360번지)
- 공사기간 : 2021.07.26. ~2024.06.25.(35개월)
- 공사규모 : 아파트 지하 최저2층 ~ 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총 902세대
- 공 사 비 : 1,673억원

□ **재해내용**

'23.01.26(목) 13시00분경 재해자가 신호작업을 위하여 작업 구간 이동 중, 정차중인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차량 앞을 지나가던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전진하여 충돌 협착



재해자가 이동중, 사고를 당한 현장
: 사진 속 펌프카 뒤에 레미콘이 있었고,
그 앞을 재해자가 걸어가다 사고를 당함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신호수, 1954년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레미콘 운전원의 장비 진행 방향 주시 태만 및 신호수의 자기방어 최우선 원칙 미준수
-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운전원 및 신호/유도원에 대한 충돌협착 예방 교육 시행
 - 신호 및 유도원의 자기방어 최우선 원칙 주지
 - 신호수 지정시 청각 기능 약화 등 유질환자 및 고령자 투입 지양
- ▷ 상기 재해 사례를 위험성평가 반영 및 안전대책 수립 후 이행 실시

■ 언론 보도자료(세계일보 외)

중흥건설 '광양 와우 지구 S클래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1-27 07:01:42, 수정 2023-01-27 13:29:52



전남 광양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분께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맡은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중흥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